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5

“삶이란 무애이며 무정이니”

[원문]

세발향전복국류(洗鉢香泉覆菊流)
제시편석침운재(題詩片石侵雲在)
반오백운경부진(半塢白雲耕不盡)
일담명월작무흔(一潭明月釣無痕)
-표충사 죽림정사

[번역]

맑은 샘물에 바루 씻으니 국화꽃 흘러가고
돌 위에 시를 쓰니 구름 덮어 오네
반 이랑의 백운 같아도 끝이 없고
연못속의 달그림자 흔적이 없네.

[시해(釋解)]

깊은 밤, 불면에 잠을 뒤적일 때가 가끔 있다. 이
런 날이면 문득 선문(禪門)
을 열어 차가운 밤공기를
가슴 가득 들어 마시고 다
시 잠을 청(請)하지만 좀처럼
오지 않는다. 몸이 늙고
마음이 외려 늙어 가면 시
절 없이 산승(山僧)에게도
외로움이 가득 밀려들어
오는 것 같다. 오십 석상
(石霜)이란 절코 적지 않은 세월을 불가(佛家)에서
보냈었지만, 지난 세월들이 주마등같다. 나는 슬그
머니 방모서리에 놓아둔 필묵(筆墨)을 꺼내 정갈하
게 앉아 먹을 갈기 시작한다.

산승이 서예를 해는 지도 불가의 세월과 거의 비
슷하지만 아직도 온전한 글씨 한 점 만들어 내는 게
여간 힘들지 않다. 글 한 점 쓰는 데도 온전히 마음
을 다 잡아 쓰지 않으면 제대로 된 글이 나오지 않
기 때문이다. 글은 곧 마음의 산물이다. 글이 제대
로 나오지 않자 나는 슬며시 다시 필묵을 물리고 생
각에 잠긴다. 이럴 때면 속절없이 은사(隱士)였던 금오
스님이 떠오른다. 팔십 생이 다 됐는데도 그리움이
란 아직도 이렇게 짙은가 보다.

며칠 전부터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善終)소식에
마음이 우울해졌던 것 같다. 종교의 벽을 넘어 보여
준 그분의 위대한 힘이 느껴졌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분의 죽음을 생각하다가 자꾸만 금오 스님의 얼
굴과 겹쳐졌다.

얼마 전, 나의 은사(隱士)인 금오 스님이 남기신 한자
로 된 친필 편지 다섯 통을 받았다. 스님께서 열
반하신 지 40년이 됐지만 정작 은사스님께서 남기
신 친필 편지는 제대로 번안(번역)이 되지 않은 터였다.
초서(草書)로 휘갈겨 쓰신 금오 스님의 친필 편지
는 도무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제대로 번안조차
하기 어려워 오래전 발간된 <금오집>에서도 그대
로 원문을 따서 실은 터였다. 하지만 금오 스님의
힘 있는 문장과 글씨가 매우 돋보인 서한이었다. 실
로 형태만 있고 그 뜻을 모르고 있었으니 제자들

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밤늦게까지 글귀를 잡고 헤맸지만 도무지 번안
해내지 못해 결국 지인의 도움을 얻어 모두 번안했
다. 자칫 잊어버리기 쉬웠던 금오 스님의 법문이 다
시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여기에 짧게 소개한다.

‘유은념보(有恩念報) 보즉합천도(報則合天)
유원념해(有冤念解) 해즉무번뇌(解則無煩惱)
일신류부운(一身類浮雲) 백년동과조(百年同過
鳥) 약이원보원(若以冤報冤) 만겁유유료(萬劫無由
了) 은혜를 입었다면 잘나마다 갚아라. 그렇게 갚으
면 천도(天道)에 부합되리라. 원한을 지었다면 잘나
마다 풀어버려라. 그렇게 풀다면 번뇌가 사라지리
라./이 한 몸은 뜬 구름과 같으니 한 평생토록 날아
가는 새와 한 가지더라. 만일 원한으로 원한을 갚는
다면 만겁(萬劫)토록 악연이 끝나지 않으리라.’

위에 시를 쓰니 구름 덮어 오네.’

한 밤중에 붓을 들고 글을 쓸 때면 한없이 마음이
정갈해지고 고요해진다. 글은 곧 사람의 마음이며
형태이다. 바위에 한 방울 맑은 샘물을 묻히고 먹을
가는 것 또한 선적(禪的) 명상이다. 잘 쓴 글씨에는
마치 국화 꽃향기 같은 아름다움이 배어 흘러나온
다. 이처럼 글은 반드시 종이 위에만 쓰는 게 아니라
돌과 나무, 형체가 없는 마음에도 써진다. ‘먹을 갈
고 돌 위에 글을 쓰면/하늘에 구름이 덮어 오듯’ 그
렇게 마음은 절대 고요 속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
다.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명상과 다름 없다.

‘반 이랑의 백운 같아도 끝이 없고/ 연못속의 달
그림자 흔적이 없네.’

불가에서 흰 구름은 덧없음의 상징이다. 그런 덧
없는 인생의 발인 흰 구름을 아무리 갚아도 이 세상
은 끝이 없이 그저 흘러
갈 뿐이며 구름 속에 달
인 달그림자는 연못에 비
추일 리가 없다. 이렇듯
삶이란 무애(無愛)이며
무정(無情)이 아니겠는
가. 참으로 주련 속에 담
긴 그 무상의 이치를 아
니느낄 수 없다.

본디 맑고 고요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이 속에
는 그 어떤 욕망도 들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 마음이 다른 무엇과 무수하게 타
협을 하게 돼 어떤 집착의 경계를 넘게 된다. 이로
인해 사람은 무언가에 집착을 하게 되고 인주하게
돼 웅덩이의 물처럼 깊혀 결국 썩고 마는 것이다.
이런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소유물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신이 가진 온전한 사유조차 감하게 돼 곧
자신의 인생은 쓸모없게 되고 만다. 즉 덧없는 인생
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를 경계하는 마음을 가르친 것이 바로 표충사
죽림정사의 주련이다. ■ 조계종 원로의원

원효 대사 창건 죽림사, 천유 선사 표충사로 명명

‘원한 반복치 말라’ 금오 스님 경책 담긴 서한 번안

참으로 금오 스님다운 경책(警策)이 아닐 수 없었
다. 어쩌면 이 한 몸도 뜬 구름과 같고 하늘을 나는
새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인생이란 덧없는데 어
찌 원한을 반복하고 있는가. 실로 금오 스님의 법력
(法力)에 대해 놀랄 따름이다

표충사 죽림정사 편액의 주련 역시, 인생의 덧없
음을 노래하고 있다. 표충사는 여러 차례 이름이 바
뀌었다. 신라 무열왕 원년(654) 봄에 원효 대사가
지금의 극락암 자리에 작은 암자를 짓고 수도하던
중, 어느 날 아침 재약산 기슭을 바라보니 대밭 속
에서 오색의 상서로운 구름이 떠올랐다.

원효는 곧바로 하산해 그 자리에 절을 세우고 이
절의 이름을 죽림사라고 했다. 지금도 그 흔적이 잘
뒤 대밭 속에 남아있다고 한다. 이후 흥덕왕 4년
(829)에는 왕의 셋째 왕자가 풍병으로 고생할 때 이
곳의 신비스런 우물물을 마시고 병이 나았으므로
절 이름을 영정사로 고쳤다고 한다.

조선 선조25년(1592) 임진왜란으로 불타버린 것
을 선조33년(1600)에 혜징 화상이 중건했다. 지금
의 표충사란 명칭은 현종5년(1839)에 사명 대사의
8세 법손인 천유 선사가 임진왜란 때 구국을 위해
현신한 사명·청허·기허 대사 등을 기리기 위해
밀양군 무안면 표충사 사당에 있던 삼대 선사(三
聖)의 위패를 옮겨와 모시면서 고쳐 부르게 됐다. 이
절의 독특한 유래와 연혁만큼이나 이곳에는 국보
와 보물 및 다양한 지방문화재들이 소장돼 있는데
죽림정사는 그 중의 하나이다.

‘맑은 샘물에 바루 씻으니 국화꽃 흘러가고 돌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받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언제나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5

마음 밖에 부처 없어

[원문]

佛及菩提 皆在何處 譬如有人 以手捉 虛空得否
虛空但有名 亦無相貌 取得不得 是捉空不得 除此心
外 覓佛終不得也 佛是自心作得 因何離此心外 覓
佛 前佛後佛 只言其心 心即是佛 佛即是心 心外無
佛 佛外無心 若言心外有佛 佛在何處.

부처와 깨달음이 모두 어디에 있느냐? 사람이
손으로 허공을 잡을 수가 있겠느냐? 허공이란 이
름일 뿐이고 모양이 없는 것이니 가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것이니라. 이렇게 허공을 잡을 수
가 없듯이, 이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찾는 것은 불
가능한 것이니라. 부처란 자기 마음으로 지어서 이
루는 것인데, 어찌 마음을 떠나
서 부처를 찾을 수 있겠느냐.
앞서 깨달은 부처님과 뒤에 깨
달은 부처님이 그 마음만을 말
씀하셨으니, 마음이 곧 부처고
부처가 곧 마음이니라. 마음 밖
에는 부처가 없고 부처 밖에는
마음이 없느니라. 만약 마음 밖
에 부처가 있다면 부처가 어디
에 있느냐.

[해설]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깨
달음이 있기에, 달마 스님께서
는 “부처와 깨달음이 모두 어
디에 있느냐?”하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허
공(虛空)을 잡을 수가 없듯이 이 마음을 떠나서 부
처를 찾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
습니다.

달마시피 허공은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허공은
가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허공은 마음
을 상징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허공을 잡을 수가
없듯이 진여당체(眞如當體) 하나의 마음자리를
떠나서는 부처를 찾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회입경>에도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을 알고
자 하면 마땅히 자기 성품을 관하라’고 나와 있습
니다. 이 마음을 수행을 통해서 깨닫고 보면 아무
것도 걸림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면 보
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보면 이 벽도 아무 걸림이
없어요. 눈을 감아도 집안 구석구석 있는 것을 순
간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은 마음으로 보기 때문
입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는지도 모두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깨닫고 보면 일체가 다 마음으로
돼 있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물질의 원자 차원에서
서는 일초에 99억 번 파동으로 진동하고 있다고 합
니다. 마음으로 보면 벽이 없습니다. 깨닫고 보면
일체가 다 마음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인
격적으로 부처님이라 하는 겁니다. 일체가 모두 마
음으로 돼 있는 것을 아는 순간 ‘깨달았다’고 이야
기하고, 그 자리를 ‘부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고 듣습니다. 인연
이 다 돼 죽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몸 안에서 마

음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이 몸을 끌고 다
니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서 마음이 빠져 나가면
‘껍데기다’ 이런 얘깁니다.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
다. 마음이 이 몸뚱어리를 끌고 다니다가 인연이
다 돼 낚고 병들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태워버
리고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몸뚱이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두 부처가 될 씨앗
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
가 된다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들이 이 반야(般若)에 의
지해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



원담 김명국(1600~1662)의 달마도

주를 하나의 마음으로 보고 뒤
아가는 것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달마 스님께서 ‘부처란 자
기 마음으로 지어서 이루는
것’이기에 마음을 떠나서는 부
처를 찾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를 알고 부처를 깨닫는
것은 오직 마음으로 하는 것입
니다. 마음자리에 우주와 하나
라는 마음을 두고 뒤아가는 것
을 우리는 정진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떠나서는 부처가 될 수
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말
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찾는
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내 마음을 찾아가는 것이
불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달마 스님께서 ‘앞서 깨달은 부처님과
뒤에 깨달은 부처님이 그 마음만을 말씀하셨으니,
마음이 곧 부처고 부처가 곧 마음(心即是佛 佛即是
心)’이라고 설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본래 마음’을 말합니다. 본래의 마음이 부처라는
말은, 법신불(法身佛)을 뜻합니다. 보신불(報身佛)
이나 화신불(化身佛)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방
편으로 출현하신 분들입니다. ‘마음이 곧 부처’라
하는 말은 이 마음에 집중을 하고 정진하는 것이
참된 수행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달마 스님의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고 부처 밖
에는 마음이 없다’는 말씀은 마음에서 보면 부처
아닌 것이 없고 마음과 부처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
는 뜻입니다.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라 하는 것이
고, 부처가 곧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주를 그대
로 하나의 마음으로 보는 순간이 바로 깨달음입니
다. 그러나 마음 밖에서 무엇을 구한다면 외도(外
道)입니다.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보고 정진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도 맑아지는 겁니다.

달마 스님께서 ‘만약 마음 밖에 부처가 있다
면 부처가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본
래성품 자리에서 보면 우주는 원래 하나입니다. 그
러나 마음 밖에 따로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부처를
구한다면 외도이지 정도가 아닙니다. 우주를 그대
로 하나로 보는 것이 ‘반야’이며 하나로 보고 행하
는 이가 참사람(眞人)입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경전연구회 2년결사 경전강좌안내

출가스님만의 공부모임 경전연구회에서 아래와 같이 2년 결사 경전강좌를 개설합니다.

- 강 주: 지리산 칠불사 통광 큰스님
경 전: • 진심직설 • 몽산 법어 • 이입 사행론
• 중도가 • 간화 결의론 • 원각경
• 달마대사 혈맥론 • 달마대사 관심론

- 과 정: 2년 과정
개 강: 2009년 3월 18일 수요일 오후 3시(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후3~6시)
모집인원: 50명 선착순(40여명 가등록 되었음)
장 소: 옥수동 미타사 내 대승암
수 강 료: 50만원(1년)

승가의 아름다운 전통을 창조하는 공부모임에 뜻을 함께하는 조계종(비구, 비구니)
스님들께서는 언제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출가자의 아름다운 삶을 실천으로 옮겨 청정승가의 가풍을 확립하는 디딤돌이 됩시다.

- 계좌번호: 102608-01-001671(우체국) 예금주: 경전연구회
문 의: 회장: 011-420-7838(지장스님) 총무: 010-7963-7070(법정스님)
재무: 016-9669-3917(정담스님)

불교경전연구회 회장 지장 합장

古佛叢林白手寺
고불을원 울원생 모집요강

고불총림 고불을원의 울맥은 조선시대 대은, 금담, 초의스님을 비롯해 근대의 만암,
서용스님을 걸쳐 30여년이 넘도록 백양사에 주석하시신 울주 동성해원스님께 이르렀습니다.
고경조심(古鏡照心), 소욕지족(少欲知足), 지계청정(持戒淸淨)의 원훈이래 부처님의 행과
불법을 널리 선양하고 계율연구에 매진하며 고불울맥을 계승할 울원생을 모집합니다.

- 응시자격: 기본교육 졸업자 및 예정자로서 자격이 인정되는 비구
■ 모집인원: 0 명
■ 모집기간: 2월 10일 ~ 3월 25일까지
■ 교 과 목: 사분율, 비니관요, 범망경 외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기본 교육기관 졸업(예정)증서 1부
- 사진(2×3규격) 4매
- 승려증 사본 1부
■ 원서교부 및 접수: 고불을원(청류암) 061)392-7506
중 무 소 061)392-7502



고불총림 백양사 고불을원